국토연구 제126권(2025. 9): pp.165~183 http://dx.doi.org/10.15793/kspr.2025.126..009

지역사회 및 삶의 만족도가 연령통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Effects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on Awareness of Age Integration: Targeting Local Residen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이소영 Lee, So Young**, 김은정 Kim, Eun J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mmunity satisfaction on age integration through resident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ether life satisfaction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users of two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facilities located in Daegu, South Korea: the Naduri Silver Community Center and the Indongchon Health Sharing Center. A total of 138 valid responses were collected. The main variables included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dependent variable), community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and life satisfaction (mediating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performed using SPSS 29.0 and AMOS 29.0. The results revealed, first, that community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Second, life satisfaction served as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atisfaction and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through increased community satisfaction,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romoting life satisfaction among residents in age-friendly urban environments.

Keywords: Community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ge Integ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Ⅰ. 서론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합계 출산율은 1.19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노년인구의 비율은 10%에서 19%로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화되었다(통계청 2025). 초고령화 사회구조는 지방의 인구소멸 및 청년의 일자리 감소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생겨 일상생활 내에서 이동이 줄어들게 된다. 노인들의 생활권 내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 이웃 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Lin, Wang, Tan and Zuo et al. 2024). 한편 노년층의 경력단절 현상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증상을

*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3092919).

** 계명대학교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Ph.D. Student, Dept.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Keimyung Univ. | Primary Author | tvxq5165@naver.com

***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Associate Prof., Dept. of Urban Planning, Keimyung Univ. | Corresponding Author | kimej@kmu.ac.kr

www.kci.go.kr

느끼게 하며, 개인의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Hinz, Mehnert-Theuerkauf, Glaesmeret and Schroeter et al. 202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그러나 노인들의 일자리가 확대될수록 청년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노년층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지은정 2022).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결혼, 출산 등에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다. 상반된 가치관으로 인해 교류가 단절되게 되고 더 나아가 연령 간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된다(이선희, 김미리, 정순둘 2019). 이렇게 청년층과 노년층의 서로 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연령 간 교류 단절을 가중하며 편견을 만든다(Tavernier, Naegele and Hess 2019).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간 편견 특히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연령주의(Ageism)' 또는 연령차별로 명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시사하였다(손위수, 김정은, 한미정 2023; Dannefer and Feldman 2017; Shimizu, Suzuki, Hata and Sakaki 2025).

연령차별 또는 연령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주경희, 김주현, 정순둘, 임병우 2017). 연령통합성(Age Integration)이란 연령 간 교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타 연령을 이해하는 폭을 의미하는 것(정순둘, 임정숙 2020; Uhlenberg 2000)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됨에 따라 사회 및 노인복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해 왔다(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둘 2015). 정순둘, 이은진, 기지혜, 최혜지(2015)의 연구에서는 연령통합성을 구성원들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연령으로 인해 제한된 사회적 장벽 및 편견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지연, 한경혜(2017) 및 이선희, 김미리, 정순둘(2019)의 연구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연령 간의 다양한 접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령통합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순둘, 정주희, 김미리(2016)의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상호 간 연대를 강화하는 '연령통합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연령이 조화롭고 통합된 사회에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와 같은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이주왕 2025; Hinz, Mehnert-Theuerkauf, Glaesmer and Schroeter et al. 2025). 따라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쇠퇴한 지역을 주민참여를 통해 활력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 활동은 해당지역 내 타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은 지역 내 인적·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령통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호준, 주창범 2022).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 운영되는 커뮤니티 활동은 지역 내 공통된 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타인과 함께 관계망을 구축함에 따라 연령 간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www.kci.go.kr

역할을 한다(김은정, 원미연, 이소영 2025).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령 간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구기환 2024).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일영, 신중진 2018). 또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지역주민 또는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활력을 증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배웅규, 박태규 2019). 따라서 다양한 연령의 집합체 공간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가치관 공유를 통해 연령 간 통합이 이루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노진현, 이재우 2024).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가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타인 간 접촉이 늘어나게 되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대감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 연령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이 이웃 간 형성된 긍정적인 인식은 지역사회 내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연령통합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순자, 전은화 2015).

Ha and Kim(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청년 간 접촉의 횟수와 질이 청년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연령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대전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38명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노인과 접촉의 빈도가 많은 학생일수록 접촉빈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연령통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접촉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과의 활동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Lau(2024)의 연구에서는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공간적 분리로 인해 발생되는 연령 간 접촉 부족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홍콩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장년층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단절된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보다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령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정, 원미연, 이소영(2025)의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연령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공동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관련 공동체 활동경험이 있는 주민들일수록 연령통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주에 대한 인식이 만족스러울수록 연령통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2) 지역사회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계획에서 장소애착은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소속감, 의존성을 의미한다(이세규 2016; 안치순 2022). 주민들의 장소애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Jia, Zhang and Zhang 2025). 뿐만 아니라 장소애착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치순 2022).

Moreno-Jiménez, Vallejo and Ríos(2017)의 연구에서는 주거 만족도, 공동체 의식, 시민참여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3개의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스페인의 말라가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거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민들이 주거환경과 이웃에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시사하였다.

이은아(2021)의 연구에서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감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고, 같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Lu, Guo, Chui and Liu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홍콩 내 6개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주관적인 보행성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지역 내 연령통합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정순둘, 이은진, 기지혜, 최혜지 2015;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둘 2015).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Kalinkara(2023)의 연구에서는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가 개인의 노화에 대한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노화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내 연령통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노화에 이해도를 높여 연령통합성을 증진해야 한다.

Che, Lei, Hung and Leong(2024)의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카오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살아가면서

www.kci.go.kr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Kanzola, Papaioannou, Papadaki and Petrakis 2024). 이에 삶의 만족도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on, Choi, Ko and Um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층의 우울감이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 행동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울이 심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는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자살 행동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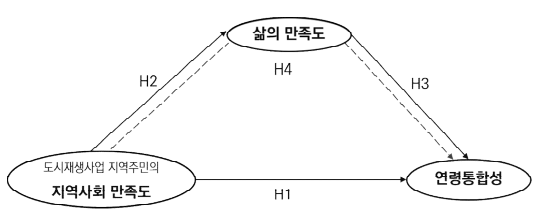
Chen and Wan(2025)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의 상태가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통해 심리적 건강과 연령주의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11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심리 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은 삶의 만족도 경로를 통해 연령주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령주의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연령주의를 감소시켜 나가야 함을 시사하였다.

2. 연구가설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연령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김은정, 원미연, 이소영(2025)의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는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상지 내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거지 및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타 연령층과 달리 노년층의 경우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웃 간의 신뢰, 상호작용 및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며 노인과 청년 간의 거리감을 완화시켜 연령통합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통합 또는 지역사회 만족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지에 관한 인식,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의식, 연령통합성 변수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가설



연구가설 1(H1):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지역

www.kci.go.kr

사회 만족도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H2):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H3):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H4):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간의 매개효과를 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만족도 또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만을 고려하여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위의 두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김은정, 원미연, 이소영(2025)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일반인 또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이 지역주민들에게 연령통합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지역사회 만족도 및 연령통합성에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설문조사 수행

연구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내 조성된 51개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중 서구에 위치한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와 달성군에 위치한 나들이 실버커뮤니티센터이다.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과 노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들이 실버커뮤니티센터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센터와 평생 교육 학습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두 시설은 모두 노인들이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공동체 활동참여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카페 및 옥상정원과 같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두 곳 모두 고령친화적 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이 조성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고령친화적 환경(Age-friendly Environment)은 노년층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한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Park and Lee 2017). 이러한 고령친화적 환경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활동 제공을 통해 연령통합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효민, 최석환, 손일락 2020; 김명일, 임진섭 2021).

두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구주관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받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성인(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표 1〉 참조). 설문조사 진행 시 3명의 조사자가 이용객들과 1 대 1로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38부를 회수하였다.

www.kci.go.kr

표 1 설문조사 항목 구성

구분	변수	변수척도
종속변수	연령통합성[1]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동의하지 않음, ③보통, ④동의함, ⑤매우 동의함
독립변수	지역사회 만족도[2]	①전혀 공감하지 않음, ②공감하지 않음, ③보통, ④공감함, ⑤매우 공감함
매개변수	삶의 만족도[3]	①전혀 공감하지 않음, ②공감하지 않음, ③보통, ④공감함, ⑤매우 공감함
통제변수	도시재생 관련 활동경험	①있다, ②없다
	성별	①남, ②여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교육수준	①초등학교 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이상
	소득수준	①100만 원 미만, ②100~200만 원 미만, ③200~300만 원 미만, ④300~400만 원 미만, ⑤400~500만 원 미만, ⑥500만 원 이상
	거주기간	①1년 미만, ②1~3년 미만, ③3~5년 미만, ④5~10년 미만, ⑤10년 이상

주: 1) 해당 변수 내 1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3〉 참조).
2) 해당 변수 내 총 4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3〉 참조).
3) 해당 변수 내 총 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3〉 참조).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변수(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연령통합성'의 경우, 정순둘, 임정숙(2020) 및 김은정, 원미연, 이소영(2025)의 연구에서 활용된 단축형 연령통합척도를 반영하였다. 단축형 연령통합척도는 정순둘, 임정숙(2020) 및 정순둘, 이은진, 기지혜, 최혜지(2015)의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령통합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타당성과 신뢰성을 통해 확보한 지표이며 크게 두 가지(연령다양성, 연령유연성)로 구분된다. 첫 번째 '연령다양성'은 연령 간 교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령유연성'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이용 가능한 것을 뜻한다(정순둘, 임정숙 2020). 이에 본 연구에는 연령다양성 8개 문항, 연령유연성 5개 문항으로 총 13개의 세부요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지역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에 따른 연령통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사회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총 4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연령통합성과 지역사회 만족도 따른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총 3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한편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내 세부 문항별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도출된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기간을 살펴보았다.

3. 분석방법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SPSS 29.0 및 AMOS 29.0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매개변수를 통한 영향을 확인하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진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 번째, 설문조사 표본 수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량을 통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객들의 현황 및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변수의 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앞서 추정한 모형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로별 계수와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표본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매개효과 및 경로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지성호, 강영순 2014; 정지은 2025).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결과

구분	변수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연령통합성		5	1	3.0	0.7
독립변수	지역사회 만족도		5	1	3.5	0.9
매개변수	삶의 만족도		5	1	3.8	0.8
구분	변수		빈도(개)		비율(%)	
응답자 특성	성별	남	52		37.7	
		여	86		62.3	
	연령	20대	2		1.4	
		30대	5		3.6	
		40대	9		6.5	
		50대	22		15.9	
		60대	46		33.3	
		70대 이상	54		39.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		22.5	
		중학교 졸업	23		16.7	
		고등학교 졸업	41		29.7	
		대학교 졸업 이상	43		31.2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60		43.5	
		100~200만 원 미만	18		13.0	
		200~300만 원 미만	20		14.5	
		300~400만 원 미만	11		8.0	
		400~500만 원 미만	12		8.7	
		500만 원 이상	6		4.3	
	거주기간	1년 미만	1		0.7	
		1~3년 미만	6		4.3	
		3~5년 미만	9		6.5	
		5~10년 미만	12		8.7	
		10년 이상	110		79.7	

주: *해당 변수의 응답 수는 127부임.

www.kci.go.kr

Ⅳ.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138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자들의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연령통합성과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만족도의 평균 점수의 경우 각각 3.0점과 3.5점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연령통합성과 지역사회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 평균 점수가 3.8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성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2.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0대 이상 비율이 31.9%를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200~300만 원 이상 비율이 전체 응답 중 14.5%를 나타내었다. 거주기간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전체 응답 중 79.7%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 시 측정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인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MO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잠재변인 내 구성되어 있는 관측변인들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김영교, 남궁미 2019). 또한 측정모형 내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수를 잘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Lim 2024).

1)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집중타당성의 경우,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과 관련성이 있음에 따라 구성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요인부하량 값을 통해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들의 값들을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든 잠재변수 문항들에서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개념 신뢰도(CR)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문항들 간 신뢰도를 확인하는 계수인 Cronbach's α 또한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연령통합성 문항 중 11번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0.5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 간 구별 가능성을 의미하며,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이현옥, 김남기, 이동수, 배병렬 2010; 신예철, 김태호, 장명준 2013). 따라서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ornell and Larcker(1981)의 연구 기준에 따르면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관계의 제곱 값보다 큰 경우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예철, 김태호, 장명준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www.kci.go.kr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B	β	S.E.	C.R.	P	AVE	CR	Cronbach's α
지역사회 만족도	1.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0.848				0.715	0.909	0.904
	2. 나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1.309	0.85	0.106	12.311	〈.001			
	3.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1.251	0.881	0.096	12.988	〈.001			
	4. 내가 사는 지역은 이사 오라고 권할 만한 곳이다.	1.336	0.802	0.119	11.266	〈.001			
삶의 만족도	1.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0.905				0.815	0.930	0.888
	2.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0.99	0.919	0.06	16.458	〈.001			
	3. 나의 삶은 즐겁다.	1.071	0.884	0.07	15.326	〈.001			
연령 통합성	1.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	0.619				0.510	0.913	0.891
	2.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다.	1.222	0.684	0.131	9.328	〈.001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이 주인공인 또는 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0.902	0.519	0.169	5.341	〈.001			
	4. 동호회 또는 친목 모임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다.	1.036	0.522	0.193	5.365	〈.001			
	5. 대학들은 중년층 이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수업들을 제공한다.	1.29	0.668	0.197	6.552	〈.001			
	6.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린다.	1.549	0.819	0.204	7.582	〈.001			
	7. 한 교실/강의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부한다.	1.319	0.698	0.195	6.77	〈.001			
	8.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176	0.672	0.179	6.581	〈.001			
	9. 연령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1.073	0.657	0.166	6.466	〈.001			
	10.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1.144	0.617	0.186	6.158	〈.001			
	11. 일터에서 젊은이와 노인 간에 지식, 기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1.103	0.627	0.177	6.236	〈.001			
	12.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소득보장을 제공받는다.	1.096	0.558	0.194	5.658	〈.001			

www.kci.go.kr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판별타당성 결과 〈표 4〉와 같이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제곱근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3.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평가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경우, χ^2 통계량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많이 활용되어왔다(김정희, 김민경 2025).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결과값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준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표 5〉와 같이 χ^2=256.365, p 〈 0.001로 분석되었으며 NC=1.744로 기준치인 3.0 이하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한 변수들의 중분적합지수인 TLI는 기준치인 0.916 값을 보였으며, CFI도 0.928로 나타나, 기준치인 0.9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기준치인 0.80보다 낮은 0.07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임을 확인하였다.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확인 및 가설검증

앞서 진행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표 6〉과 같다. 첫 번째. 지역사회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47, p 〈 0.001).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 1을 입증하는 바이다. 두 번째, 삶의 만족도(β = 0.21, p 〈 0.026)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 2가 입증되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만족도(β = 0.442, p 〈 0.001)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또한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지역사회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통합성
지역사회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0.470***	1	
연령통합성	0.541***	0.418***	1
AVE	0.715	0.815	0.510
M±SD	3.71 ± 0.85	3.80 ± 0.83	3.38 ± 0.60
왜도	- 0.24	- 0.17	0.01
첨도	- 0.87	- 0.31	- 0.20

주: * p 〈 0.1, ** p 〈 0.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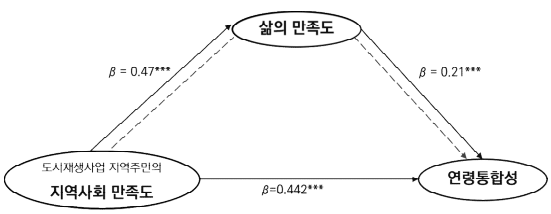
표 5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χ^2	df	p	NC (〈3.0)	TLI (〉.09)	CFI (〉.09)	RMSEA(〈.08)		
						Value	LO90	HI90
256.365	147	〈.001	1.744	0.916	0.928	0.073	0.058	0.088

www.kci.go.kr

한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바탕으로 연령통합성과 지역사회 만족도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의 검증결과 〈표 7〉과 같이 지역사회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통해 연령통합에 미치는 매개효과(β = 0.073, p = 0.011)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95%)에서 [0.027, 0.15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 4가 입증되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표준화 계수를 활용한 경로분석 결과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 1(H1):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주민 간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하여 연령통합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β=0.442)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활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간 유대감이 형성될수록 연령 간 편견이 줄어들게 된다(박민선, 정순둘 2020).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공유공간의 역할로 적극 활용하여 청년과 노인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령통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 2(H2):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에서 특히 지역사회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β=0.47)이 가장 높은

표 6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가설	경로			B	β	S.E.	t	P	채택 여부
H1	지역사회 만족도	→	연령통합성	0.329	0.442	0.08	4.132	〈.001	○
H2	지역사회 만족도	→	삶의 만족도	0.56	0.47	0.105	5.315	〈.001	○
H3	삶의 만족도	→	연령통합성	0.131	0.21	0.059	2.221	0.026	○

표 7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Estimate	S. 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p
			하한	상한	
지역사회 만족도 → 삶의 만족도 → 연령통합성	0.073**	0.038	0.027	0.157	0.011

주: * p 〈 0.1, ** p 〈 0.05, *** p 〈 0.01.

www.kci.go.kr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사회활동의 참여가 적어지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어 이웃 간 유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연 2022).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창일(2017)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내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통해 주민 공동체를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내 주거환경, 문화시설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거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과 더불어 삶에 대한 인식도 증진해야 한다(정소양, 김현중 2024).

세 번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 3(H3):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통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β=0.21)은 다른 변수들 간의 영향력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저해한다(정순둘, 정세미, 이미우, 임정숙 2016). 이에 따라 Dannefer and Feldman(2017) 및 권미조, 이준영, 최낙혁(2018)의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연령통합적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치료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긍정적인 삶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 번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 4(H4):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간의 매개효과를 할 것이다.' 또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교류가 많으며, 타 연령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iao, Zhang, Xie and Li et al. 2024). 삶의 만족도가 커뮤니티 형성과 연령통합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용하여 연령 간 갈등을 완화 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 번째, 다소 적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표본 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결과인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의 연령통합성에 미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72%가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구결과가 고령층의 의견에 다소 편중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응답자 그룹이 고령층에 다소 편중된 것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거주민과 비거주민들 간의 인프라 및 사회적 환경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지역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통합성이 도시재생사업 전과 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이전의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설문지 재구성을 통해 더 많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본 수를 확보하여 거주지역, 특정 대상지 여부, 연령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통합성 간에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도시재생 사업

www.kci.go.kr

전후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지 설정, 설문조사 설계 등이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다섯 번째,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닌 대구광역시 내 조성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경우, 수도권 및 특·광역시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도시 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및 삶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통합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변수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변수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연령통합성을 기반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강효민, 최석환, 손일락. 2020. 고령친화환경과 사회참여활동 및 주관적 건강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1권: 323-332.
   Kang Hyo-Min, Choi Suk-Hwan and Son Il-Lak.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ge-friendly environment,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self-rated health of elderly generation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81: 323-332.
2. 구기환. 2024.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의식과 정치성향의 효과 검토. 지방정부연구 28권, 1호: 101-124.
   Gu, Gihwan. 2024. Resident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tical ori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8, no.1: 101-124.
3. 권미조, 이준영, 최낙혁. 2018.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권, 1호: 339-363.
   Kwon Mizzo, Yi JoonYoung and Choi NakHyeok. 2018. Social cohesion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6, no.1: 339-363.
4. 김명일, 임진섭. 2021. 중고령자의 고령친화환경 인식 유형과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권, 2호: 263-288.
   Kim Myoung-il and Lim Jinseop. 2021. A study on the types of age-friendly environment perception and age discrimination of the middle-aged and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6, no.2: 263-288.
5. 김영교, 남궁미. 2019.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도에 영향요인 연구: 장소애착심 개별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3호: 43-65.
   Kim Yeongkyo and Nam gung, Mi. 2019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of urban regener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1, no.3: 43-65.
6. 김은정, 원미연, 이소영. 2025. 도시재생사업이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활동경험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기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11권, 1호: 251-265.
   Kim Eun Jung, Won Mi Yeon and Lee So Young. 2025.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 age integration among local residents: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local community activities and operation period of joint utilization facilities of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11, no.1: 251-265.
7. 김일영, 신중진. 2018.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역량강화에 미친 영향: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19권, 1호: 83-100.
   Kim Il-young and Shin Joong-jin. 2018. The influence of community-based facilities on residents' empowerment - Focused on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site of Seoul.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19, no.1: 83-100.
8. 김정희, 김민경. 202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 내현적

www.kci.go.kr

자기애, 정서조절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구조적 관계. 미래기술융합논문지 4권, 1호: 83-92.
Kim Jeong-hui and Kim Min-kyeong. 2025.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implicit narcissism,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nalized shame.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4, no.1: 83-92.

9. 김창일. 2017.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거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경기도 거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권, 3호: 89-115.
Kim, Chang-il.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Focus on residents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GRI REVIEW* 19, no.3: 89-115.
10. 노진현, 이재우. 2024.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중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6권, 3호: 25-44.
Noh Jin Hyun and Lee Jae Woo. 2024. A study on the important factors for creating urban regeneration base faciliti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6, no.3: 25-44.
11. 류지연. 2022.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로. 노인복지연구 77권, 4호: 11-40.
Ryu ji-yeon. 2022. The effect of housing related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of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7, no.4: 11-40.
12. 문호준, 주창범. 2022.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성 연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권, 1호: 267-287.
Mun Ho Jun and Ju ChangBum. 2022.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61*, no.1: 267-287.
13. 배웅규, 박태규. 2019. 주민공동체운영회 회계현황으로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향 연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15개 마을 관리회계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0권, 1호: 73-89.
Bae Woongkyoo and Park Taegyu. 2019. Operation direction of community faciliti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by the village community management association accounting status - Focused on 15 villages where the residents public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d.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20, no.1: 73-89.
14. 박민선, 정순둘. 2020.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차별 행동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세대갈등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40권, 6호: 1383-1401.
Park Minseon and Chung Soondool. 2020.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f young generation on perception and behavior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older peopl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generational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 no.6: 1383-1401.
1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025년 6월 5일 검색).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 (accessed June 5, 2025).
16. 손위수, 김정은, 한미정. 2023. 세대 간 연대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 모색: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변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36호: 110-149.
Sun Yushu, Kim Jeong-Eun and Han Miejeong. 2023. Exploring influential variables for enhanc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stereotypes of the elderly generation, emotions, moral foundations, ageism, and media contacts. *Advertising Research* no.136: 110-149.
17. 신예철, 김태호, 장명준. 2013. 도시 및 교통계획의 합리적 연계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의 개발특성과 대중교통서비스 여건의 영향관계분석. 도시설계 14권, 2호: 99-111.
Shin Yea-Cheol, Kim Tae-Ho and Jang Myoung-Jun. 2013.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urban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transit service-infrastructures in subway station influence areas of Seoul for rational integration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14, no.2: 99-111.
18. 안치순. 2022.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강원동해안 3개 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3권, 1호: 53-68.

www.kci.go.kr

An, Chisoon. 2022.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mental well-being of local city residents: Focusing on three local cities located on the east coast of Gangwon-do. *Journal of Future Society* 13, no.1: 53-68.

19. 이선희, 김미리, 정순둘. 2019. 청년세대의 연령주의 유형화 및 연령주의 유형과 세대갈등 · 노인복지정책 인식의 관계. 한국노년학 39권, 4호: 825-846.
Lee Sunhee, Kim Miri and Chung Soondool. 2019. Identifying subgroups of ageism among young adults, and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generational conflict and elderly welfare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9*, no.4: 825-846.
20. 이세규. 2016. 장소애착이 도시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함평나비축제를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0권, 4호: 331-352.
Lee Se Kyu. 2016. The influence of place attachment on urban brand: Focused on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0, no.4: 331-352.
21. 이순자, 전은화. 2015. 노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권, 1호: 113-131.
Lee Sun-Ja and Jeon Eun-Wha.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y lives of the elderly and relevant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 no.1: 113-131.
22. 이은아. 2021. 마을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주거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19권, 6호: 197-204.
Lee Eun-A. 2021. The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9, no.6: 197-204.
23. 이주왕. 2025.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환경 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부동산융복합연구 5권, 1호: 123-151.
Lee Joo Wang. 2025.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ccord 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of the elderly. *Journal of Real Estate Convergence* 5, no.1: 123-151.
24. 이지연, 한경혜. 2017.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노화불안이 노인과의 시공간 공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1권, 2호: 1-30.
Lee Jiyeon and Han Gyoung-Hae. 2017. The influence of negative stereotype towards the elderly and aging anxiety on Korean's attitudes about sharing space and time with the elderl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 no.2: 1-30.
25. 이현옥, 김남기, 이동수, 배병렬. 2010. 외식업체의 관계효익에 의한 고객가치와 신뢰가 고객만족, 긍정적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상저널 2권, 1호: 63-89.
Lee Hyun-Ok, Kim Nam-Gi, Lee Dong-Soo and Bae Byung-Ryul. 2010. The effect of the customer value and trust by relational benefit of food service business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itive word-of-mouth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 no.1: 63-89.
26. 정소양, 김현중. 2024.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결정요인. 국토연구 122호: 59-77.
Jung So Yang and Kim Hyun Joong. 2024. Aging in place of elderly: Perception, needs and determinant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no.122: 59-77.
27. 정순둘, 이은진, 기지혜, 최혜지. 2015.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권, 2호: 380-404.
Chung Soondool, Lee Eunjin, Ki Jeehye and Choi Hye-ji.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age integr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 no.2: 380-404.
28. 정순둘, 정세미, 이미우, 임정숙. 2016.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연령집단별 비교. 보건사회연구 36권, 1호: 261-285.
Chung Soondool, Chung semi. Lee Miwoo and Lim Jungsuk. 2016.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variables influencing on age integration: Comparison among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 no.1: 261-285.
29. 정순둘,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권, 4호: 5-24.
Chung Soondool, Jeong Ju Hi and Kim Mi Ri. 2016. The influence of ageism and age integration on percep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 no.4: 5-24.
30. 정순둘, 임정숙. 2020. 단축형 연령통합척도 타당화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령통합인식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www.kci.go.kr

한국노년학 40권, 1호: 73-89.
Chung Soondool and Lim Jeungsuk. 2020. Validation of short form age integration scale and relationships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ge integration: A comparison of age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 no.1: 73-89.

31. 주경희, 김주현, 정순둘, 임병우. 2017.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 인식에 대한 연구: 청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권, 3호: 71-93.
Ju Kyong-Hee, Kim Ju-Hyun, Chung Soon-dool and Lim Byung-Woo. 2017. Attitudes toward age groups and age integration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old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 no.3: 71-93.

32. 정지은. 2025. 중학생의 독자 인식과 읽기 능력의 관계에서 읽기 태도와 읽기 가치의 이중매개효과. 국어교육연구 87호: 111-160.
Jung, Ji-eun. 2025.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reading attitude and reading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reader perception and reading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no.87: 111-160.

33. 지성호, 강영순. 2014. 사회과학분야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정 방법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 16권, 6호: 3121-3131.
Ji Sungho and Kang Young Soon. 2014. Discussion on mediation tes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ocial scienc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 no.6: 3121-3131.

34. 지은정. 2022.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 세대담론에 대한 연구: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권, 2호: 149-186.
Ji Eun Jeong. 2022. Study on the generational discourse on jobs for youth and the elderly: Focusing on job quality.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9, no.2: 149-186.

35.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둘. 2015.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권, 3호: 107-124.
Choi Hyeji, Park Junghwa, Kwon Miri and Chung Soondool, 2015. Study on potentiality of age integra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aged society: Focusin g on comparing perception regarding impacts of age integration between policy target and professiona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 no.3: 107-124.

36. 통계청. http://kostat.go.kr (2025년 6월 3일 검색).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accessed June 3, 2025).

37. Che, S. L., Lei, W. I., Hung, T. and Leong, S. M. 2024. Attitudes to age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age-friendly c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in Macao: A cross-sectional study. *BMC Geriatrics* 24, no.1: 1-9.

38. Chen, S. and Wan, Z. 2025.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ageism among undergraduates: Mediating roles of life satisfaction, gratitude, and prosociality.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8: 119-137.

39. Dannefer, D. and Feldman, K. 2017. Age integration, age segregation and generation X: Life-course Perspectives. *Generations* 41, no.3: 20-26.

40. Fornell, C. and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no.1: 39-50.

41. Ha, J. and Kim, J. 2021. Ageism and the factors affecting ageism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 no.4: 1798.

42. Hinz, A., Mehnert-Theuerkauf, A., Glaesmer, H., Schroeter, M. L., Tibubos, A. N., Petrowski, K. and Friedrich, M. 2025.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ver six year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longitudinal study with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PLOS ONE* 20, no.1: e0316990.

43. Jia, J., Zhang, X. and Zhang, W. 2025.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urban planning in Jinan: Does environmental quality affect human perception in a developing country context?. *Land Use Policy* 148: 107384.

44. Kalinkara, Velittin. 2023. Aging perception and life

www.kci.go.kr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Elderly Issues Research Journal* 16, no.1: 23-33.

45. Kanzola, A. M., Papaioannou, K., Papadaki, A. and Petrakis, P. E. 2025.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dentity: O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compliant behaviour. *Statute Law Review* 46, no.1: 1-15.
46. Lau, Mandy. H. M. 2024. Residential age segregation: Evidence from a rapidly ageing asian cit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17, no.3: 557-577.
47. Liao, M., Zhang, X., Xie, Z., Li, L. and Zou, L. 2024.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daily living abiliti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Chinese older people: Evidence from CHARLS 2020.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1-11.
48. Lim, Weng Marc. 2024. A typology of validity: Content, face, convergent, discriminant, nomological and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Trade Science* 12, no.3: 155-179.
49. Lin, T., Wang, Q., Tan, Z., Zuo, W. and Wu, R. 2024. Neighborhood social environment and mental heal th of older adults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green space.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no.6: 1502020.
50. Lu, S., Guo, Y., Chui, C., Liu, Y., Chan, O. F., Chan, S. W. and Lum, T. Y. 2022.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mental well-being among Chinese older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Innovation in Aging* 6, no.7: 1-13.
51. Moreno-Jimenez, M. P., Vallejo, M. and Rios, M. L. 2017. Improving quality of life via social work: Influence of residential and community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60, no.6: 1564-1577.
52. Park, S. and Lee, S. 2017. Age-friendly environmen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n elders: Person-environment fit perspective. *Aging & Mental Health* 21, no.7: 693-702.
53. Shimizu, Y., Suzuki, M., Hata, Y. and Sakaki, T. 2025. Wisdom's moderating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ageism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Japan: A pre-registered stud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Plus* 2, no.1: 100110.
54. Tavernier, W. D., Naegele, L. and Hess, M. 2019. A critical perspective on ageism and modernization theory. *Social Inclusion* 7, no.3: 54-57.
55. Uhlenberg, Peter.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 no.3: 261-266.
56. Won, M. R., Choi, E. J., Ko, E., Um, Y. J. and Choi, Y. J.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 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among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6, no.11: 1732-1738.

• 논문 접수일: 2025. 6. 23.
• 심사 시작일: 2025. 7. 15.
• 심사 완료일: 2025. 8. 21.

www.kci.go.kr

요약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가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두 변수들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중 나들이 실버커뮤니티센터와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38부를 수집하였다. 주요변수들은 종속변수(연령통합성), 독립변수(지역사회 만족도), 매개변수(삶의 만족도)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9.0 및 AMOS 29.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지역사회 만족도는 연령통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지역사회 만족도와 연령통합성 사이에서 삶의 만족도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이 지역사회 및 연령통합에 미친 파급효과와 함께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삶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주제어:** 지역사회 만족도, 삶의 만족도, 연령통합성, 도시재생사업, 구조방정식

www.kci.go.kr

www.kci.go.kr